

배우 정해인 “이제 다시 로맨스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2 안준호 역
 “이 작품은 내 연기 인생 변곡점과 같아”
 “시즌1보다 시즌2 연기가 더 힘들었다”
 “D.P. 출연 후 새로운 역할 제안 들어와”

“제 연기 인생의 변곡점이지.” 배우 정해인(35)에게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리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묻자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대답을 내놨다. 2018년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주목 받은 후 그는 수 년 간 로맨스 스타였다. ‘시동’(2019) 같은 영화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정해인은 역시나 드라마 ‘봄밤’(2019)이나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2019) 같은 로맨스물에서 더 큰 존재감을 보였다. 그랬던 그가 대중에 새로운 모습을 각인한 건 재작년 ‘D.P.’에서였다. “제가 연기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이야기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D.P.’에선 멜로 드라마에서 보여준 정해인 특유의 환한 웃음은 찾아볼 수 없다. 도망치듯 입대해 안준호(정해인)는 우연찮게 헌병이 되고 헌병 내에서도 탈영병을 잡는 군탈체포조 DP가 된다. 군대에서 마주한 일그러진 얼굴로 일그러진 한국 사회 한 단면을 목격

한 안준호는 자주 무력하고, 그 무기력에 종종 슬퍼한다. 그리고 죄책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발버둥친다. 그런 안준호의 무표정엔 분노와 슬픔, 곁가와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 이전 분영 이전에 정해인에게선 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배우셨는지 ‘D.P.’ 전에는 제게 들어오지 않던 시나리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웃음) 작가·감독님들이 이전 정해인을 데리고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요.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지.”

정해인은 사람이라는 개인 감정에 집중하던 연기에서 벗어나 장르물의 틀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됨으로써 변신에 성공했다. ‘D.P.’ 시즌1에서도 받지 않았던 안준호는 시즌2에선 더 어두워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안준호는 조석봉 일병 사건이 준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 전에 이번엔 조석봉의 친구 김루리 일병이 저지른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 사건 중심에 선다. 안준호는 군대라는 조

직의 부조리를 목도한 데 이어 이번엔 청년들에게 의무만 짊어지게 한 채 그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국가의 방기(放棄)를 본다. 정해인은 “시즌1보다 시즌2 연기가 감정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했다.

“시즌2 대본엔 ‘수척해진 안준호’라는 지문이 있어요. 워낙 큰 충격을 받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가 건강해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할 땐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체력이 정말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액션 장면을 찍을 때는 정말 악에 받쳐서 했어요.(웃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촬영이었지만, 정해인은 2개 시즌을 함께한 동료들 덕분에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21년 시즌1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차기 시즌 제작이 그해 곧바로 확정됐고, 전작을 함께한 배우·스태프가 모두 다시 뭉쳐 작업한 결과물이 시즌2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한준희 감독과 거의 모든 스태프가 다시 시즌2에 투입됐고, 구교환·손석구·김성준 등 전작을 함께한 배우들도 모두 합류했다. 정해인은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기분이었다”며 “이렇게 따뜻한 현장은 처음 경험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게 되면 친해지는 데 써야 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시즌2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연기에 투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즌1을 함께했던 분들이 이렇게 모두 다시 뭉쳐서 시즌2를 만든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해인은 2018년 이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약 5년 간 그가 출연한 영화·드라마만 10편이 넘는다. 그는 4~5년 간 정말 좋은 순간도 있었고, 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

와 건강하게 초연해진 상태라고 했다.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피폐해져요. 건강하게 다양한 역할과 장르에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멜로 연기를 하는 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다. “오래 안 했으니까, 도전이죠. 멜로 연기 정말 어렵잖아요. 진짜 감정이 아니면 다 타기 나니까요.”

아이유,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모두 고소



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과 관련 해당 사건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이담은 전했다. 실제 아이유 측은 표절 건과 무관하며 특히 아이유는 작사·작곡을 하지 않은 저작물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 시비에 대해서도 무관하다.

이담은 “지난달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절 루머를 허위로 온라인에 게시한 유포자들에 대해선 “지난 2월28일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해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 3월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피니트 완전체, 성공적 귀환…‘비긴’, 12개국 아이튠즈 톱10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K팝 2세대 대표 그룹 ‘인피니트(INFINITE)’가 성공적인 귀환을 알렸다.

지난달 31일 7번째 미니 앨범 ‘비긴(13egin)’을 발매한 인피니트는 컴백 첫 주 활동을 멋지게 마쳤다. 지난 3일 앨범 ‘엔카운터다운’을 시작으로 KBS 2TV ‘뮤직뱅크’, MBC TV ‘쇼! 음악중심’, SBS TV ‘인기가요’에 연이어 출연하며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New Emotions)’ 컴백 무대를 선보였다.

5년 만의 완전체 신곡으로 음악 방송 무대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New Emotions)’ 컴백 무대 선보여

에 오른 인피니트는 자신들의 시그니처인 각 잡힌 군무를 벗어던지고 성숙한 남성들의 나른 색시미를 담은 매혹적인 안무로 무대를 압도했다. 격렬한 안무에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6인6색 음색 시너지를 선보이며 글로벌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 인피니트의 치명적인 매력을 한층 극대화하는 다채로운 스타일링 또한 화제가 됐다. 멤버들은 블랙과 화이트의 럭셔리 슈트와 버건디 셔츠, 각자의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톤의 캐주얼한 룩까지 다양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무대를 보는 재미를 더했다.

컴백 첫 주 음악 방송 무대를 성공리에 마친 인피니트는 유의미한 기록을 세우며 ‘K팝 레전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했다. ‘비긴’은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 톱 K팝 앨범 차트에서 해외 12개 국가 및 지역 TOP10을 기록했으며, 발매 하루도 채 되지 않은 18시간50분만에 멜론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명예의 전당에 등극했다.

‘비긴’은 초동 판매량(앨범 발매 후 일주일 간의 판매량) 8만장 이상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이는 인피니트가 2013년 발매한 네 번째 미니 앨범 ‘뉴 챌린지(New Challenge)’의 초동 판매량 6만7000여장을 뛰어

넘는 수치이자 자체 최고 기록으로, 여전히 굳건한 인기와 막강한 영향력을 재차 실감하게 했다.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 뮤직비디오 또한 유튜브 조회수 800만회를 훌쩍 넘기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긴’은 인피니트가 2018년 발매한 정규 3집 앨범 ‘탑시드(TOP SEED)’ 이후 약 5년 만에 여섯 번째 완전체로 발매한 신보다. 최근 리더 김성규를 주축으로 인피니트 컴퍼니를 설립한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내딛는 첫 발걸음. 앨범명인 ‘비긴’의 ‘B’를 숫자 ‘13’으로 표기해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인피니트가 화려한 제2막을 연다는 의미를 담았다.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는 가요계 ‘히트 메이커’ 라이언 전(Ryan Jhun)의 작품으로, 인트로부터 흥미롭고 중독되는 인스트로 키를 사로잡으며 독특한 진행과 프로덕션이 돋보인다. 멤버들의 풍성한 보컬과 코드 프로그래션이 묵직하게 어우러진 빈틈없는 소리 표현이 매력적인 곡이다.

인피니트는 신곡 ‘뉴 이모션스’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오는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옛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을 연다.

슈퍼주니어 규현, 안테나와 전속계약

그들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이 안테나에 새 동지를 틀었다.

7일 안테나는 “슈퍼주니어의 메인 보컬이자 감성 발라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규현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현의 폭넓은 활동을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규현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슈퍼주니어 멤버로 K팝 열풍을 이끌어온 규현은 지난 2014년 미니 1집 ‘광화문에서’를 발매하며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했다. 규현은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으로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 뮤지컬 ‘모자르트!’, ‘웃는 남자’, ‘팬텀’, ‘프랑켄슈타인’ 등에도 출연하며 탁월한 보컬 실력은 물론 섬세한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다. 규현은 오는 9월2일 개막하는 뮤지컬 ‘벤허’에도 주연으로 나선다.

규현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 중이다. 규현은 tvN ‘벌거벗은 세계사’, KBS



2TV ‘걸어서 한창 속으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등에 출연 중이다.

한편 안테나에는 유희열, 유재석, 정재형, 루시드폴, 이상수, 이효리, 페퍼톤스, 박세별, 샘김, 이진아, 권진아, 정승환, 윤석철, 미주 등이 소속돼 있다.

예매 가장 많다…‘콘크리트 유토피아’ 살아남을까

예매 관객수 8만명 넘겨 한국영화 1위

올해 여름에 나오는 ‘한국영화 빅4’ 중 마지막 주자인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며 박스오피스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7일 오전 9시10분 현재 예매 관객수 약 8만2000명을 기록, 한국영화 중 가장 많은 예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예매량 순위에선 ‘오픈하이머’(약 13만1000명)에 밀려나 2위이지만, ‘오픈하이머’는 다음 주 개봉작이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픈하이머’ 공개에 일주일 앞서 오는 9일 관객을 만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한국영화 예매 순위 2위에 올라 있는 ‘밀수’(약 4만명)보다 예매량이 2배 가량 많아 개봉일에 무난히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를 거로 전망된다. 이 작품과 함께 올해 여름 한국영화 빅4로 불린 ‘밀수’ ‘비공식작전’ ‘더 문’ 중 지난해 나온 ‘비공식작전’과 ‘더 문’은 사실상 더 이상 흥행이 어려운 상황

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오피스 순위 경쟁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밀수’ 2파전으로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서울에 대지진이 발생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이병헌이 외부인에게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주민 대표 ‘영탁’을, 박서준은 아파트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민성’을, 박보영은 민성의 아내로 극한 상황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 ‘명화’를 맡았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김송능 작가가 2014년에 내놓은 웹툰 ‘유폐한 왕따’ 2부인 ‘유폐한 이웃’이 원작이다.

연출은 ‘인투기’(2013) ‘가려진 시간’(2016) 등을 만든 엄태화 감독이 했다. 엄 감독은 배우 엄태구의 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